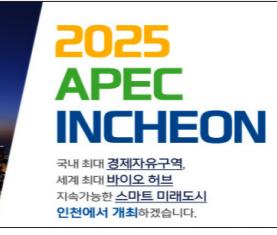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제1287호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이스라엘 단기체류 국민 218명 항공편·육로 이용 빠져나와

191명 대한항공편으로 귀국길, 27명은 요르단으로 육로 이동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특별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 사태로 이스라엘에 중 191명이 대한항공 항공편을 타고 현지를 떠나고, 27명은 육로를 통해 인접국 요르단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귀국편은 이스라엘 현지시간

으로 오후 1시 45분께(한국시간 오후 7시 45분) 텔아비브 공항을 출발한다.

이스라엘에는 장기체류자 570여명 외에 단기체류자 480여명이 머물고 있는데, 이들 중 총 218명이 이스라엘을 빠져나오는 것이다. 또 12일에는 30명이 터키항공을 이용해 출국한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단기체류 국민은 애초 대한항공 이용객 360명으로 파악됐는데, 제3국 항공사를 이용해 입국한 12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현지 잔류할 단기체류자 230여명에 대해서도 항공편 또는 육로를 통한 출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체류 교민에 대해서는 한인회, 코트라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장기체류하고 계신 교민 대다수가 안전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당장 철수까지는 권고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성지순례자 현지를 방문한 여행객들이 빨리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권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국제공항이 정상 운항되고 있고, 그런 현지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대책을 계속 수립하고 강구중”이라며 “현지 한인사회, 유관기관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이스라엘 정부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인 피해가 없는 것이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공관에 피해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 김민재 기자



얼굴 드러낸 최원종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신청

“조현병 발병 가능성”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2)이 법정에 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스라엘 대변인 리처드 헤트 중령은 “이 과정에서 하마스 무장대원 시신 약 1천500구를 발견했다”며 “어젯밤 이후 추가로 침투한 무장대원은 없다”고 말했다.

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도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서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704명으로 여기에는 아동, 청소년, 여성도 다수 포함됐으며 3천72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양측의 사망자를 합하면 1천600명을 넘었고, 양측 부상자 합계도 6천명을 훌쩍 넘어섰다.

/ 송진영 기자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체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최원종은 피해방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면 최원종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겸색한 점 등을 토대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20대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재판에서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가족과 친구, 피해자의 친구 등 29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 최석호 기자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음악축제 참가자를 끌고가는 하마스

정리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었다.

구 접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남부 지역의 통제권을 대체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자지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尹, 이·팔 전쟁에 “교민·여행객 안전대책 철저히 준비” 지시

“우크라·중동 사태로 경제불안 요인 커질수있어…민생난 가중되지 않도록 진력”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1천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자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원기 기자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기소는 자충수…수사 외압 밝혀질 것”

“국방부 문건, 박 대령 거짓말쟁이로 매도…형사고발 검토”



‘체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10일 “재판으로 밝혀질 진실은 수사 외압의 전모”라고 주장했다.

‘체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10일 “재판으로 밝혀질 진실은 수사 외압의 전모”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박 대령 변호인단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소는 자충수”라며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국민 앞에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가 재판대에 세운 것은 박 대령이지만 법정에서 심판받을 대상은 수사 외압의 장본인들”이라며 “일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박 대령이 군복을 벗을 각오로 보직을 걸고 항명할 이유가 없다는 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역시 “박 대령을 기소한 것을 기소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소 내용은 여러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지난 8 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정한 사

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군검찰 스스로 주장한 사실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속한 하주희 변호사는 “전시가 아닌 일반적 상황, 군의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 처리와 관련 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전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센터와 변호인단은 또 최근 외부로 유출된 국방부 국방정책실의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내부 문건을 ‘괴문서’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괴문서는 공소장보다 먼저 세상에 알려졌지만 공소장과 쌍둥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박 대령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박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에게 이런 괴문서를 만들어 유포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아닌 제3의 인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 최형석 기자

이동재 전 기자, 정준희 교수·민언련 전 대표 ‘명예훼손’ 고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채널A 전 기자 이동재 씨가 10일 방송 진행자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서중·김언경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정 교수와 김 전 대표가 2020년 4월 방송된 TBS ‘정준희의 해시태그’에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날조해 유포했다며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정 교수는 방송에서 “거짓이라도 좋으니 증언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전 대표도 “(이씨가) 그냥 거짓이든 진실이든, 약한 거든 셀 거든 뭐든지 줘봐”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또 같은 해 7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며 “녹취록에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씨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진행자가 횡당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 김형숙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 “물량확보·패스트트랙 공정관리로 공공주택 공급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

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

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경우 올해 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1만호 공급을 예고했다.

내년 뉴홈 사전청약 계획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민간 주택공급에 대해서 “부

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

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양희찬 기자

국토부는 특히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정비 구역 6만 2천호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분쟁 해소 장치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 통합, 조합 전자총회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 지하고 속도로를 통한 입체 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철도·도로·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양희찬 기자

“인천서 여성 10명 살해” 협박글 40대…징역 3년 구형



인 예고 글이 사회적 큰 문제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범행했고 실제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행위의 위험성도 크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 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호기심에 범행하게 됐다”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고 계시된 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도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흥기 난동 범행과 살

/ 한민수 기자

**posco
INTERNATIONAL**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한덕수 “부산엑스포 위해 지구 400바퀴…연대의 시간 만들 것”

프랑스 파리 찾아 유치전…심포지엄에 일대일 회담 ‘빡빡’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성민 대통령 특사 겸 미래전략기획관, 박형준 부산시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최대원 SK그룹 회장이 9일(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에서 외신기자들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현지시간)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민관이 지구 400바퀴에 맞먹는 거리를 이동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엑스포 유치에 기대를 걸었다.

부산엑스포 유치 공식 심포지엄을 위해 이날 저녁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한 총리는 공항에서 곧바로 파리 시내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특파원들을 만나 이같이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관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 훈장을 통해 수치로 제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와 기업에서 이동한 거리만 각각 850만km, 790만km로 합하면 지구를 409바퀴 돋구리라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9일 오전 파리 에펠탑 근처의 선상 카페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2030 엑스포가 왜 부산에서 열려야 하는지 흥보했다.

해 민관이 지구 400바퀴에 맞먹는 거리를 이동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엑스포 유치에 기대를 걸었다.

부산엑스포 유치 공식 심포지엄을 위해 이날 저녁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한 총리는 공항에서 곧바로 파리 시내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특파원들을 만나 이같이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관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 훈장을 통해 수치로 제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와 기업에서 이동한 거리만 각각 850만km, 790만km로 합하면 지구를 409바퀴 돋구리라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만찬 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형준 시장 “부산, 글로벌 허브시티 만들 것”

최태원 회장 “솔루션 플랫폼 통해 각국 맞춤형 해법 제시”

한 총리는 “부산은 한국의 대외교역 관문으로서 대표적 경제도시이자 해양도시”라며 “특히 한국전쟁이 끝나고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도약의 발판이 된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부산엑스포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도움을 되돌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산엑스포가 추구하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산엑스포는 ‘경쟁에서 연대로의 전환’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등 인류의 당면 위기를 해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수준 높은 창의력, 혁신성, 산업기반은 기준의 엑스포와 차별화 한 방식으로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 시장은 “부산엔 다양한 인프라 구조가 있고 모든 나라에서 접근이 용이하다”며 “우린 부산을 글로벌 허브 시티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만찬 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부산은 첨단 시티”라고 소개하며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친환경 시스템 등을 접목해 스마트시티를 현실화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부산을 ‘넷제로

(Net Zero)’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박 시장은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부산엑스포가 기존의 엑스포들과 다른 점에 방점을 뒀다.

그는 “우리는 부산엑스포에서 솔루션 플랫폼 개념을 소개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후 위기나 디지털 격차, 인권 문제 등 많은 국제적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데, 각 나라에 맞는 해결책은 다를 것”이라며 “우린 솔루션 플랫폼을 통해 각국이 당면한 문제에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접근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이익”이라며 “자동차나 TV 등을 만들 때 어떤 게 그 나라에 가장 유익할지 솔루션 플랫폼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솔루션 플랫폼을 다음 엑스포 유치국에 넘겨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 총리는 오후 심포지엄에 이어 각국 관계자들을 초대해 만찬을 주재한다. 이 자리엔 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을 모은 민간 기업 대표들도 함께한다.

한 총리는 만찬 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신재일 기자



라이더유니온 “배달 노동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시설 설치 등 고용노동부의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에 배달 노동자가 배제돼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배달 업종 포함 7개 취약직종에서 상시 근로자 2명 이상 만큼 근무해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100명이 일해도 상시 근로자 2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등과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가 고객응대 근로자로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로 보호될 수 있는 대상이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종사자’로 한정돼 있어서 복수의 플랫폼에 속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교현 지부장은 “노동부의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에는 배달노동자가 배제돼 있다”며 “노동부가 관련 대책과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우리 노동관계법은 이들의 일터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법체계가 이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무관심한지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순길 기자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미래를 기대해

50th Anniversary 2018 -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놀라운 도약의 지난 5년, 그리고 더 크고 더 높게 성장해
新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해.

50th Anniversary

한국해양진흥공사 2030 미래상

01 총 자산 20조원

02 선박금융 공급 1위

03 스마트 해운 물류 통합 플랫폼 구현

04 ESG 공공부문 최우수 통급

송영길 뇌물 의혹 조준한 검찰…‘고교 동창’ 역할 추적



송영길 전 대표

수석전문위원이었던 김씨의 역할에 주목 한다. 박 전 회장이 송 전 대표에게 전달한 요구사항이 김씨를 거쳐 국토부에 전달됐으리라는 것이다.

김씨는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부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등에서 경력을 쌓은 공무원 출신이다. 2019년 국토부 산하 기관장을 지낸 뒤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씨 영입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김씨는 송 전 대표와 광주 대동고 동창”이라며 “송 전 대표의 추천으로 당에 합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이 최대 주주인 A사는 석유화학공업단지인 여수산단의 폐기물 처리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지난 2020년 11월 200억원을 투자해 소각로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소각로 증설을 통해 매출이 최대 2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인허가권을쥔 전라남도와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해 2021년 9월 무산됐다. 역사연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시기 이후다.

물론 로비의 성사 여부는 뇌물죄 성립과는 무관하다.

A사는 이후로도 소각장 증설을 계속

‘宋 추천’ 민주당 영입된 국토부 전관…청탁 통로 의심 송영길 “검찰 지목 소각장 뭔지도 몰라…별건 수사”

당 선대위 부동산공급태스크포스(TF) 부단장을 맡았다.

그는 당시 당 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이던 송 전 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공공개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의 세부 내용에는 송 전 대표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 방식이 포함됐다.

이같은 송 전 대표와 개인적 인연, 대표 시절 당내 요직을 맡은 이력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다만 실제 청탁이 김씨에게 전달됐는지, 그에 따라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해 올해 7월 여수산단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를 따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씨와 송 전 대표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역사연에 전달됐다는 4천만원의 종착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제3자 뇌물에서 송 전 대표의 직접 뇌물수수로 혐의가 비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는 해당 의혹에 대한 김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달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지목한 소각장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돈봉투 의혹 수사가 안 되니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박현경 기자

신원식 “9·19합의로 北도발 감시 제한…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도높은 위협에 놓여있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장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 민국이 놓여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띠워서, 무언가 띠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49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

는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엔 9·19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선 “폐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는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조규현 기자



홍익표 원내대표, “尹정부 맞서 국감서 국민 의혹 시원하게 해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으로,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국감상황 실현 판시 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은 위기 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국감의 원칙과 기준은 국민”이라며 “국민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 요구는 분명하게 관찰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을 두고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라며 “여당은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사청문회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은 김 후보자가 장관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격이라

는 것”이라며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부적격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 철회 요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는 상식이나 비상식이나, 시민의 힘이나 오만한 권력이나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여러분의 투표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회의 전 불교방송 라디오 ‘전령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내 3선 이상 중진들의 힘지 출마론과 관련, “정치개혁의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반(反)정치로 볼 수 있다”며 “3선 이상 동일지역 출마 금지를 제도화한다든지 강제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김종민·설훈·이상민·이원욱·조승천 등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로 분류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청원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이재명 당 대표가 복귀하면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백도영 기자

與 “권인숙 방지법 발의…野위원장 막말에 김행 청문회 파행”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습 파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국회의

성가족위원장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며 파행을 유도했다고 보고, 이런 경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윤재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

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기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으면서도 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맹ungan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를 ‘권인숙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

인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기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으면서도 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맹ungan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권인숙 여가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하지 못하면 사퇴하라’는 막말

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 의사일정이 진행되길 자정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린 사람과, 재판 시작 1시간여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야당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했는데 이런 일은 현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 이윤환 기자

이동관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추진”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공영방송 협약제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포털 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면서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이동관 방통위원장

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신료 분리 정수를 도입함과 동시에 KBS·EBS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MBN 재승인 심사와 34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매체별 사업자별 특성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해 미디어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재정비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방송 편성 규제, 소유·경영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권정석 기자

방심위원장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기승 우려 불식”

“허위 보도와 인격 침해 게시물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강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선거 영향 등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한 치의 모자람 없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의 생명·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인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달 허위 조작뉴스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가짜뉴스를 긴급 심의할 수 있는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신설했다”면서 향후 법제도 정비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협력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사의 악의적 허위 보도와 온라인 플랫폼의 인격권 침해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등 입법 지원을 통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불법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를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들과 자율 모니터링 확대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젊은 층에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도박·마약·음란 콘텐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통·확산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구글·메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적극적으로 불법·유해 정보 시정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승만 기자

내 개인연금도 글로벌 연금 전문가가 무료로 운용해주는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랩어카운트

- 글로벌 자산배분 & 리밸런싱: 시황에 따라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자동 리밸런싱
- 투자목적 및 성향에 따른 개별 포트폴리오 제공: 위험자산 비중에 따라 개인연금 70+/40+/30+/20+ 중 선택
- 증권업계 최초!

미래에셋증권의 본사 전문 운용 인력에 의해 운용되는 투자 일임서비스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수익률은 월별 혹은 월별 수익률은 있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은 고객님이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5184호 (2023.05.03~2024.05.02)

양평군, 공통지구 특혜의혹 기소공무원 징계 안 해…“시효 지나”

경기 양평군이 윤석열 대통령 측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통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양평군은 지난 6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이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위법행위가 징계 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공무원은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당시에는 한 직급씩 낮은 5급, 6급, 7급이었다.

군은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해제 조치 하지도 않았다.

양평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위



경찰, 윤석열 장모 공통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법행위가 2016년 발생했는데 이후 수년 이 지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3년을 넘겨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의결 요구가 있

난 2016년 6월 공통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7월 28일에는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를 비롯한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등 5명도 이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윤 대통령 처남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각각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 송진영 기자



퇴진 집회 나선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

해병대 예비역 단체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답게 퇴진하라”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는 8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예전 수해복구 작전 지휘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즉시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 입으로 두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해병대답지 못한 지휘관의 영(令)은 설 수 없다”며 “해병대 1사단을 혼란 속에 가두지 말고, 해병대답게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7월 19일 예천 수해 복구 당시 지휘관들의 작전 지휘 실패로 채 해병

이 순직했으며, 생존 장병 4명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작전 지휘 총책임자이자 많은 작전 지시를 하달한 1사단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채 해병 순직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수사 외압 주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박정희 대령의 즉각적인 업무 복귀 등도 주장했다.

앞서 임 사단장은 지난 8월 2일 ‘책임을 통감하며,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다.

/ 이성준 기자

딥페이크 음란물 심의 9천 건 넘는데 삭제는 5%도 안 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이 최근 3년 2개월간 9천 건을 넘겼지만, 콘텐츠 삭제는 5%에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기존 동영상 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되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천6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2020년 6월 25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개정 시행에 따라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왔다.

심의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지난해 3천574건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심의도 3천46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간 삭제된 영상은 410

건으로 전체 심의의 약 4.55%에 불과 했다. 시정 요구 내역의 95.44%는 접속 차단이었고, 이용해지는 1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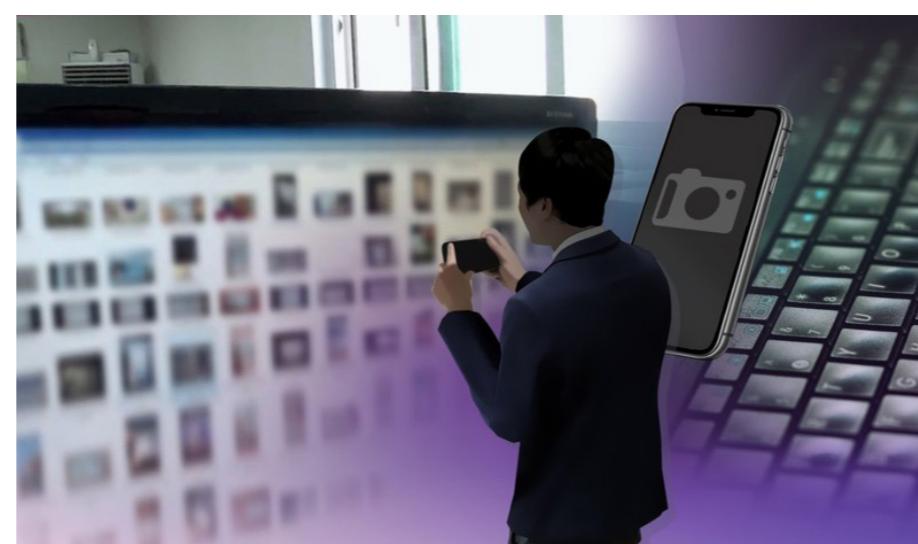
이는 불법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플랫폼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이 2021~2022년 집계한 허위 영상물 유포 범죄는 316건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관련 범죄가 96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 기간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74건과 75건, 2023년 8월까지 50건으로, 검거율은 약 48.3%에 그쳤다. 민 의원은 성적 허위 영상물이 피해자의 민감 정보 등을 포함한 만큼, 방심위가 더 적극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삭제에 나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심위와 경찰청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시간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을 유통하는 개인·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기술 발달을 고려해 탐지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차단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백경호 기자



“과거 신체사진 받았어도 성착취물”

청소년 협박 20대 징역형

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모바일 공개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과거에 미리 촬영해둔 신체 사진을 전달받은 것으로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 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에 미뤄, 보관한 사진은 성 착취물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 최형민 기자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 연말까지

대전 등 14개 지역서 운영

남양주에서 상담소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그간 피해 발생 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해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이번 분기부터는 피해 임차인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세워 운영

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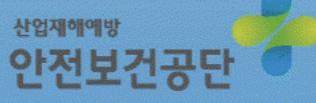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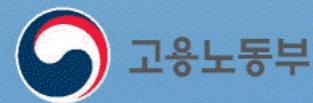
또 생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소를 열고,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 사전 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전세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자치체에서 이 상담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그간 1천6명이 총 2천135건의 서비스를 받았다.

/ 신종호 기자

모두가 하나되어 산업재해 철벽방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수출입·외환에도 내 편이 하나 생겼다

전세계 25개 지역 192개 하나은행 네트워크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2023년 8월말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로 문의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유효입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6511호(2023.09.18) / CC브랜드 230908-0117

삼성·SK 中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 무기한 허용된다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반도체 최대 통상현안 일단락”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과 기술 절취 등을 막고자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 해선 1년간 미 정부에 건별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끊었다. 이에 우리 산업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며 미국의 이번 결정이 새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

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종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막판까지 미측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금번 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최 수석은 또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와 더불어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된 점도 언급하며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

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은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타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인 1만4천대를 기록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를 달성했다.

최 수석은 “정부는 미측에 우리 업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와 리스 등 상용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고 이후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차량 양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송원 기자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서울디지털재단-서울교통공사 업무협약

서울 지하철, AI 활용해 이상행동 탐지 난동·사건 잡는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지하철 내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생성형 AI

서울교통공사-서울디지털재단,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협약에 따라 공사와 재단은 ‘생성형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 추적 모델 기획 연구’를 진행한다.

지하철 안에서 이상행동이 발생할 경우 AI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해 관제 담당자와 현장에 이를 알리도록 하는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

폐쇄회로(CC)TV 영상의 묘사 정보와 행동 패턴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이미지 캡셔닝’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12월까지 기술 테스트와 모

델 설계를 마치고 서울지하철 5호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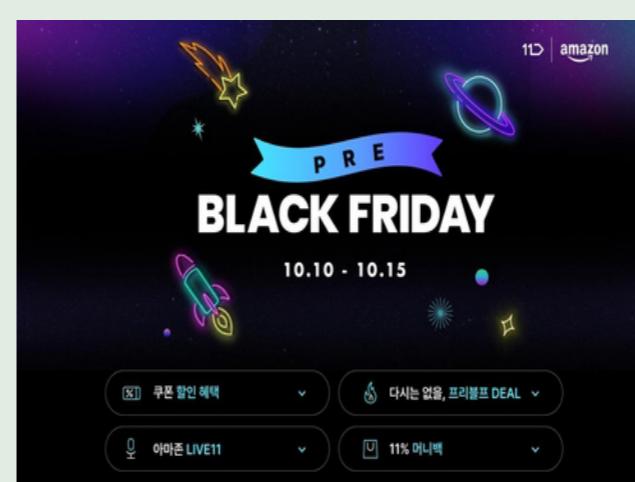
한 역사를 선정해 기술력을 검증할 계획

이다. 기술력이 검증되면 이후 전 역사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생성형 AI

블랙프라이데이 혜택 미리…11번가, 아마존 상품 할인행사



11번가는 오는 10~15일 대규모 해외 직구(직구) 행사 ‘프리(pre) 블랙프라이데이’를 열고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상품을 최대 54% 할인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 오후 4시 시작되는 ‘프리 블랙 오픈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선 블루투

스 스피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게이밍 키보드, 여성용 유산균 등 20여종을 특가에 판매한다.

11일 오후 8시 라이브 방송에서는 간절기 수요가 높은 피부관리 아이템과 패션잡화를 선보인다.

또한 행사 기간 매일 한정 상품을 특가에 판매하는 ‘투데이 딜’, 커뮤니티 인기 상품 상위 10위 상품을 소개하는 ‘지금 가장 핫한 핫딜’, 카테고리별로 상품 기획자가 추천하는 상품을 모은 ‘베스트 딜’ 등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11번가는 행사 기간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7% 할인쿠폰을 매일 발급한다.

또 지인에게 상품을 추천해 구매가 이뤄지면 추천한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11%를 SK페이 머니로 지급한다.

11번가는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 행사 ‘블랙프라이데이’와 연계해 다음 달 말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와 연중 최대 규모의 해외직구 쇼핑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신철호 기자

GS25, 제주-내륙 간 ‘반값 택배’ 서비스 개시…감귤은 제외

편의점 GS25는 제주-내륙 간 ‘반값택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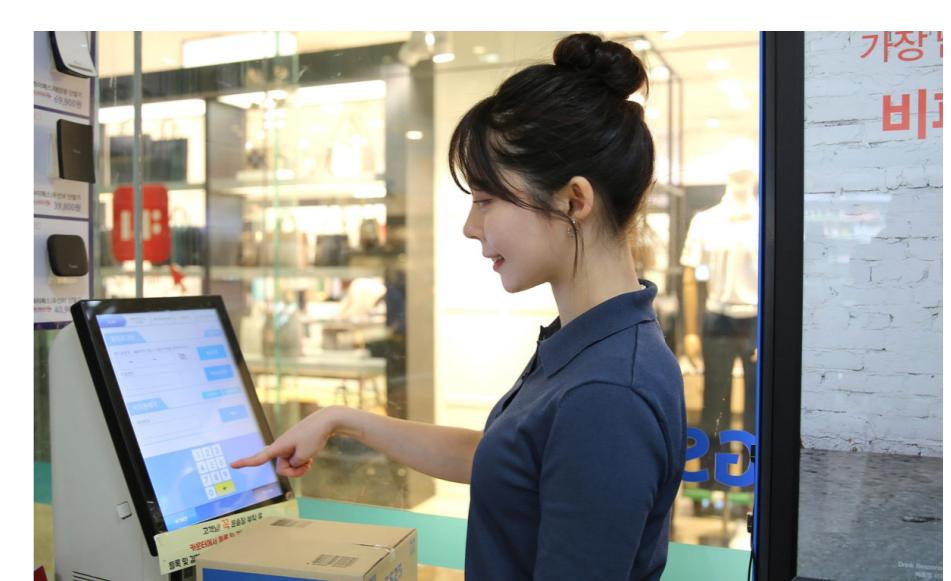
반값택배는 고객이 GS25 점포에서 화물을 보내고 찾아가는 택배 서비스다.

접수, 배송, 수령까지 모든 서비스가 GS25 자체 물류 배송망·인프라를 통해 이뤄져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그동안 섬 안에서만 반값택배 서비스가 가능했으나 많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주-내륙 간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GS25는 설명했다.

다만, 기존의 반값택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중량이 5kg을 초과하거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80cm를 넘는 부피의 상품, 물품가액 5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류 등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특산물인 감귤은 반



값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배송 기간은 접수일 포함해 5~7일 이내다. 기상 악화로 선박 운행이 어려우면 배송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GS25 관계자는 “제주도와 내륙 간 반값택배 서비스 개설로 제주도민을 비롯해 많은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경준 기자

지구의 뚜른 미래, LG의 클린테크로 켜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 가치 만들기, LG가 함께하겠습니다.

LG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 대한민국의 건설문화 혁신

SH가 잘하는 일입니다



준공도면 공개

원가내역서 공개와 더불어 SH공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

자산 공개

대한민국 공기업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한 자산의 전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총족 및 열린 경영 실천

사업결과 공개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 수익 재투자 및 향후 개발방향 공개

분양원가 공개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등 총 71개 항목을 모두 공개

후분양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 실제 주택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적정임금제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숙련 근로자를 유입, 안전사고를 줄이고 주택 품질 제고

고품질 주택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를 도입하여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 추진

직접시공제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제를 확대 시행하여 책임시공 강화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고품질 주택 건설 선도

사전예약제

후분양시점(건축공정률 90%)에 본청약을 진행함으로써 수분양자의 대출 기간과 중도금 부담을 경감

건물만분양 '백년주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주변 시세의 40~60% 가격으로 주택 공급

권익위 “서울광장 분향소 무단점유 위법…변상금 부과 타당”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올해 2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했다.

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거쳐 불허했으나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시는 무단 점유의 책임을 물어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2천



추석인 29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활동 차례를 지내고 있다.

900만원을 부과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적법한 집회를 위해 공유지에 분향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가 아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

당하다고 반발했다.

당시 시민대책회의는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기 위해 행진하다가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차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집회·시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도 기각했다. 당시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 사용 신고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 조례에 따라 중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중앙행심위는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정리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거리 댄스 퍼레이드 참가한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흥타령축제 2023’ 87만명 관람 “세계적 춤 축제로 도약”

국내외 춤꾼들의 향연인 ‘천안흥타령축제 2023’에 87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지난 5~9일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 시내 일대에서 ‘도전과 창조 정신이 어우러진 춤’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했던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나라의 무용단이 찾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줬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1위로 선정된 ‘전국춤경연대회’는 일부부 대상 상금 확대와 참가팀 연령 확대를 추가하면서 참가팀들의 수준 높은 끼와 재능을 엿볼 수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는 “이번 연휴를 끝으로 영화제는 종반으로 접어든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남은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병호 기자

코트 ‘흥이&춤이’와 춤 대결을 벌이는 ‘길거리 댄스배틀’ 뿐만 아니라 장르별 스트리트댄스 배우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람객 누구나 춤을 즐기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말 연휴 동안 펼쳐진 막춤대첩은 전문 댄서가 아닌 일반시민도 끼어들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일에는 전 세계에서 열리는 춤 축제 간 상호협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춤 축제연맹(FIDAF) 집행위원회가 열려, 춤 축제와 민속춤 공연단의 긴밀한 교류로 춤의 도시 천안과 천안흥타령축제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폐막 선언에서 “세계 각국의 참가자와 수많은 관람객의 밝은 얼굴과 행복한 웃음을 눈에 담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행복을 느꼈다”며 “5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내년을 기약한다”고 말했다. / 신현수 기자

“연휴의 끝은 영화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에 발길 이어져

주요 영화제 수상작 연일 매진, 다양한 유럽·아시아 신작도 인기

한글날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부산 국제영화제(BIFF)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해운대 영화의전당 주변에는 관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배우 및 감독들의 아외무대 인사나 오픈토크는 지난 7일 주말을 기점으로 대부문 끝나 이날은 순수 영화 관람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본행사에 들어간 아시아콘텐츠마켓 행사장에 사람들이 몰렸다.

9일 오전 9시께 영화의전당에서는 이날 첫 상영 영화인 ‘1923년 9월’에 이어

‘뮤직’ 상영관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다. ‘1923년 9월’(모리 다초야 감독)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초청영화로 선정될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날 오후 상영된 베尼斯영화제 황금사자상 ‘가여운 것들’(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지난 7일 첫 상영부터 표가 매진된 데 이어 이날도 매진 사례를 빚었다.

올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주락의 해부’(주스틴 트리에 감독)가 상영된

같은 시간대 CGV 스타리움도 관객들로 가득 찼다.

CGV 매표소 앞에서 만난 한 관객은 “지난 8일 상영 때도 표를 구하지 못해 못 보고, 오늘은 현장 구매를 위해 일찍 나왔지만 실패했다”며 “이 영화만큼은 꼭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칸, 베를린, 베니스 등 세계 유수 영화제 수상작 외에도 다양한 소재의 유럽 영화와 아시아 신작 영화를 보려는 관객들의 발길도 각 영화관으로 이어졌다.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3일차를 맞은 이날 부산스토리마켓 비즈니스미팅, 프로젝트 피칭, 영화 제작발표회 등으로 개최 장소인 베스코는 크게 붐볐다.

베스코 제1전시장 이벤트룸B에서는 ‘한미일 콘텐츠 제작 환경과 글로벌 시장 전략’을 비롯해 대만·인도네시아 공동제작 스플리터 ‘밀리스’ 제작발표회, 법률 세미나 ‘콘텐츠 분야 거래공정화 및 상생협력 동향’ 등이 열렸다.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는 “이번 연휴를 끝으로 영화제는 종반으로 접어든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남은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병호 기자

속초시, 시 승격 60주년 기념 ‘설악문화제’ 성황 폐막

거리페레이드·드론쇼·음식축제 ‘다채’…12만명 찾а



속초시 60년 기념하는 700대 드론쇼

로 열린 700대의 드론쇼는 축제장 밤하늘에 속초시민의 자긍심을 알리는 다양한 라이트쇼로 펼쳐진 축제의 백미였다.

속초시는 이번 설악문화제를 앞두고 2주 전부터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지난달 23일 설악산 산악 등반 행사를 시작으로 4일에는 설악산 권금성 성화체화와 봉송행사를 열었다. 성화 봉송은 시승격을 기념해 숫자 60과 관련된 사연이 있는 참가자를 선발했다.

축제 기간 제1회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배틀대회를 비롯해 버스킹페스티벌, 군 장비 전시 및 체험, 설악 한궁대회, 속초시 8개동 교류 부스, 지역문화 체험 부스와 설악마켓, 3대 3 농구대회, 페리올림픽 등이 진행됐다.

이밖에 속초시가 엑스포 광장에 처음 연 음식문화축제 ‘마술다, 속초’와 청호동 수산물공동할복장에서 연 공존문화지대 프로젝트 ‘속 깊은 마을, 살펴보는 걸음’ 전시도 축제를 더 풍성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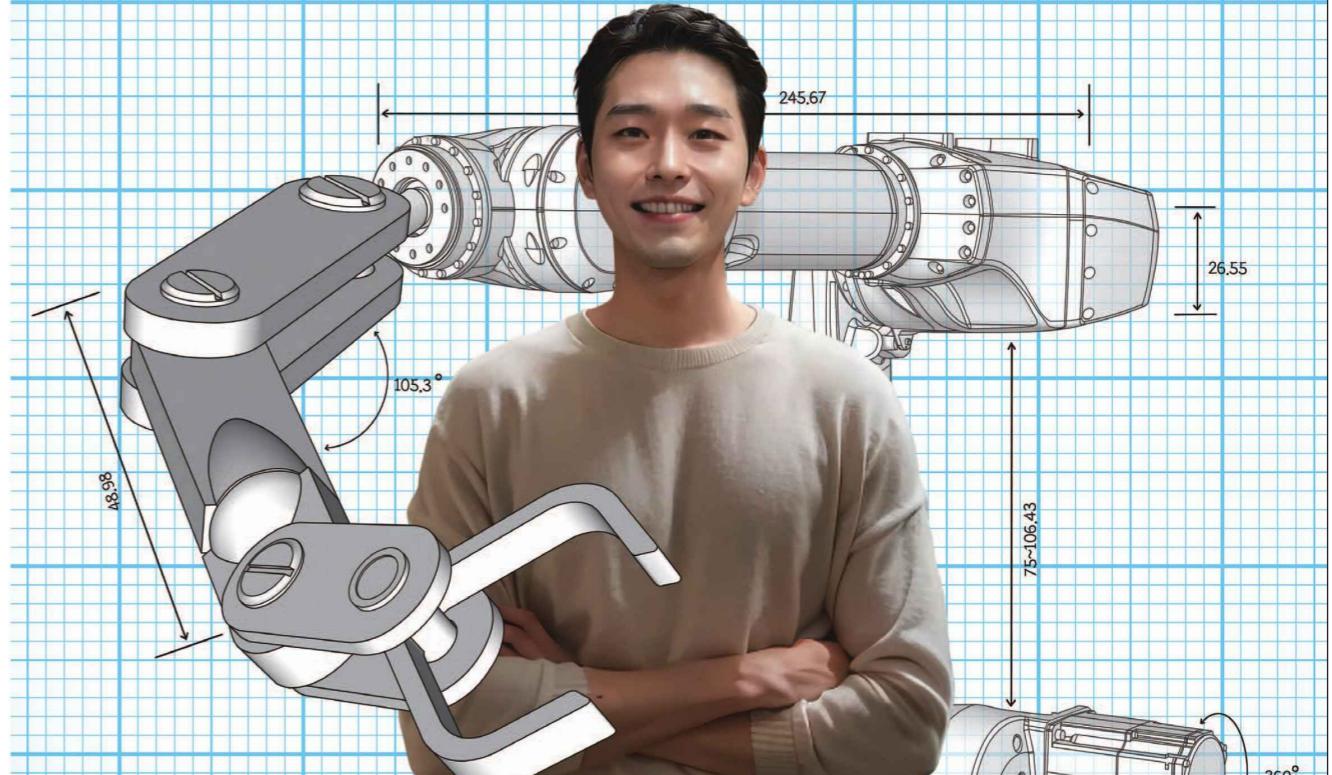
/ 오은주 기자

**만나 저온 없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로봇개발자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꿈을 응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IBK기업은행이 창업기업을 위한 더 큰 응원을 시작합니다!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힘을 더해주세요



누구나 가입 가능한 IBK 혁신창업기업 응원통장

*위 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예금수익은 혁신창업기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본형
· 고시금리 연 3.15% ~ 연 3.30%
· 실세금리 정기예금
· 우대금리 최고 연 0.10%

기본형
· 고시금리 연 3.10% ~ 연 3.25%
·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상 기관
· 우대금리 최고 연 0.10%

기여형
· 고시금리 정기예금
· 우대금리 없음
· 우대금리 우이자
· 우대금리 없음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IBK비금융서비스

창업 초기 및 출범
경영 컨설팅 제공

IBK 창업컨설팅
창업 초기 및 출범
경영 컨설팅 제공

IBK 창업
사무용간접금, 멘토링,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IBK BOX
금융·비금융 솔루션 제공
디자인 경영지원 플랫폼

서울시·서울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 시민 무료초청·할인

키움·우리카드, 소외계층·다문화가정 초청…두산·FC서울은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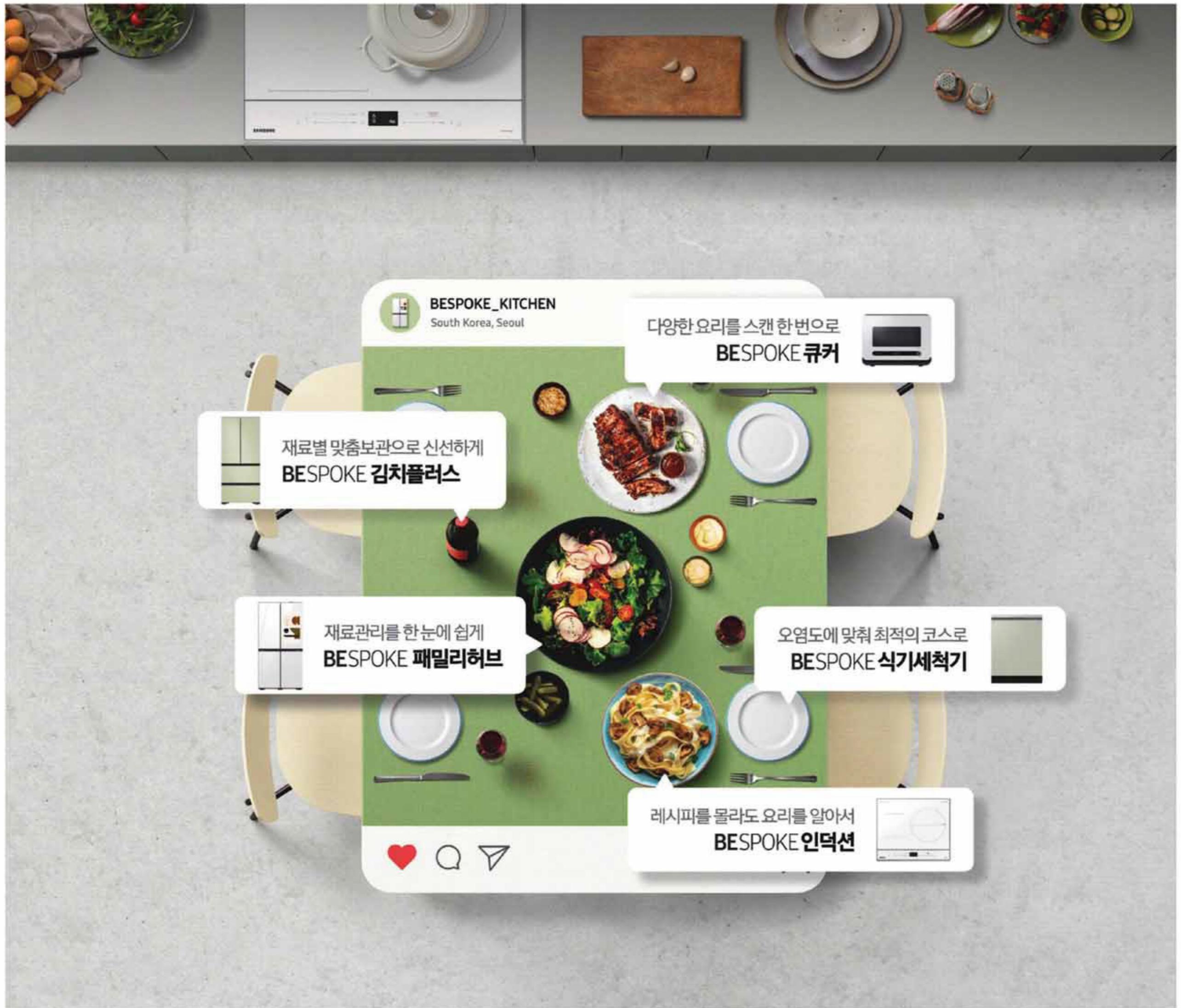
서울시는 10월 28일 서울시민의 날 맞아 서울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 구단과 함께 스포츠 경기 할인·무료 초청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는 1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서울 마이 소울 데이’를 열어 서울시 소외계층 약 1천 명을 무료로 초청한다. 25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시 다문화 가정을 약 1천 명을 무료 초청해 ‘서울 시민 데이’를 연다. 경품추첨·선수들과의 기념사진 활용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프로배구 우리카드 우리WON도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V리그 정규시즌 홈 경기에 서울시 다문화 가정을 무료로 초청한다.

두산베어스와 FC서울은 각각 3일과 8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티켓 할인 이벤트를 열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연말까지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수 있게 서울시 연고 스포츠 구단과 협력해 스포츠 도시 서울의 매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SAMSUNG



집밥은 실전.

보여지는 한 끼를 위해 재료관리, 불조절, 마무리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으니까
비스포크가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서.

BESPOKE 키친



가전을 나답게.

*소비자 이해를 증진 위한 연출한 미디어 「SmartThings_Cooking」 사용을 위해서는 SmartThings 앱 설치 및 편집 필요, SmartThings와의 연계 시 인터넷화 WiFi 기능이 커져 있어야 함 「SmartThings 앱을 통해 Android 10.0 이상 지원」 → 해당 내용은 SW IP 그레이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실제 조리 시 사용 확인, 조리 방법 등에 따라 조리 시간에 차이가 있거나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우리 중소기업, 더 날개 돋칠 힘****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우리 소상공인, 더 오래 걸을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의 힘은 강해질 테니까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우리은행

클린스만호 10월 소집훈련 시작…손흥민·이강인 출석 도장 ‘쾅’

AG 득점왕 정우영, 청바지에서 주섬주섬 금메달 꺼내 들며 ‘활짝’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10월 A매치 2연전에 대비한 소집 훈련을 시작했다.

클린스만호의 부름을 받은 태극전사들은 9일 오후 2시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됐다.

대표팀은 1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뉴질랜드와 친선 경기를 치르고 나흘 뒤인 17일 오후 8시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베트남을 상대한다.

지난달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1-0 승리를 거둬 데뷔 6경기 만에 첫 승전고를 울린 클린스만호는 완전체 전력으로 나서는 10월 A매치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뉴질랜드와 베트남을 제물로 연승 도전에 나선다.

소집 첫날을 맞아 10월 A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린 24명의 선수 가운데 18명이 우선 모였다.

캡틴 손흥민(토트넘), 이재성(마인츠)을 비롯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3연패를 이루고 돌아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정우영(슈투트가르트), 홍현석



9일 오후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한국 축구대표팀 소집훈련에서 정우영, 설우영, 홍현석, 이강인, 오현규가 뛰며 몸을 풀고 있다.

(헨트), 설영우(울산) 등 ‘금빛 4인방’도 이 날부터 훈련에 참가했다.

이날 오후 늦게 합류할 예정이던 오현규(셀틱)도 선수단과 모습을 드러냈다.

해외파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의조(노리치)는 이날 저녁 파주NFC에 도착할 예정이다.

황인범(즈베즈다)과 박용우(알아인), 이날 새벽 소속팀 경기를 치른 김민재(바

이에른 뮌헨)와 조규성(미트윌란)은 10일 대표팀에 합류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홀로 8골을 넣어 대회 최다득점자로 이름을 올린 정우영은 이날 훈련장으로 들어오며 손가락 8개를 펴 보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청바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 자랑하며 활짝 웃었다.

클린스만호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 첫 훈련에 나섰다.

클린스만 감독은 해외파 선수들이 많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들도 전날 귀국한 만큼 소집 첫날인 이날은 회복 훈련을 위주로 계획을 짰다.

취재진에게 공개된 초반 30분 훈련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강하게 내리쬐는 가을 햇볕을 피해 나무 그늘에 둉그렇게 모여 서서 박수로 아시안게임 멤버들의 금메달을 축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 훈련 구장에 맷트를 깔고 2인 1조로 짹을 지어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고, 코치의 동작을 따라 하며 엉덩이, 허벅지 등 각종 근육을 풀어주기도 했다.

한편 이날 훈련에는 니클라스 알베스의무팀 트레이너가 함께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알베스 트레이너는 10월 A매치부터 정식 합류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도 오랜 기간 일한, 독일 텁 클래스 트레이너”라고 설명했다.

/ 최준용 기자



통증 호소하는 안세영

‘부상 투혼’ 안세영, 2~5주 재활 진단 올림픽 영향 없을 듯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릎 통증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투혼을 보여준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21·삼성생명)이 큰 부상을 피했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세영은 전날 귀국 직후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을 받았고 이날 무릎 근처 힘줄이 찢어졌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안세영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5주 동안 재활 기간을 가진다.

8월 세계개인선수권, 9월 중국오픈,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를 연달아 치른 만큼 재활 치료 이후에도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내년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안세영은 이날부터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오늘 1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덴마크오픈과 프랑스오픈은 대표팀과 출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안세영은 지난 7일 천위페이(중국)와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1세트 18-16에서 자신의 앞으로 떨어지는 셔틀콕을 페울리려다 무릎 통증을 느끼고 의료 처치를 받았다. 패색이 짙어지는 듯했으나 안세영은 아이싱, 테이핑 처치를 받아 가며 부상 투혼을 펼쳤고, 결국 국격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경기를 마친 안세영은 부상 당시를 두고 “무릎에서 ‘妣’ 소리가 나서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들었고 통증 때문에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 오성준 기자

‘AG 금메달 목에 걸고’…야구대표팀 6명, 휴식 없이 1군 등록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4연패 위업을 달성한 남자 야구대표팀의 주장 김혜성 등 선수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야구의 4연속 금메달을 이끈 주역들이 하나둘 소속팀으로 복귀해 힘을 보탠다.

야구대표팀 주전 1루수로 활약한 문보

경(LG 트윈스)과 외야수 윤동희(롯데 자이언츠)는 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릴 롯데-LG전을 앞두고 나란히 1군 엔트리에 돌아왔다.

야구대표팀 주전 1루수로 활약한 문보

7일 열린 대만과 결승전에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고, 8일 오후 귀국한 이들은 곧바로 팀에 합류했다.

염경엽 LG 감독은 “문보경은 오늘 1군

에 등록했어도 출전은 하지 않는다. 10일 잡실 롯데전부터 나설 예정”이라며 “투수인 고우석과 정우영도 10일 1군 엔트리에 등록한다”고 밝혔다.

LG는 주전 포수 박동원의 1군 말소로 엔트리 한자리가 비었고, 문보경을 미리 등록해 그 자리를 채웠다.

이의리(KIA 타이거즈)를 대신해 대표팀에 극적으로 승선, 팬들을 휘두른 윤동희도 1군 엔트리에는 돌아왔으나 선발 명단에서는 빠졌다.

청원NC파크에서 열릴 한화 이글스-NC 다이노스전에도 대표팀 선수들이 팀에 합류했다. NC는 포수 김형준과 내야수 김주원, 왼손 투수 김영규까지 3명을 한꺼번에 1군 엔트리에 넣었다.

한화는 홈런왕 경쟁 중인 노시환은 1군에 복귀했지만, 미리 설정한 올 시즌 한계 투구 이닝을 넘긴 대표팀 에이스 문동주는 등록 없이 시즌을 마칠 예정이다.

/ 권도영 기자



지난 7일 별세한 박종환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장례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치러진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박종환 감독의 장례를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리는 영결식을 협회가 주관한다.

협회는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4강 위업을 비롯해 고인이 청소년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팀 일화 축구단의 K리그 최초 3연패 달성을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배성욱 기자

중소기업 대표 경영안전망 PL단체보험



국내 최초 운영

20년간 약 7만건 인수



경쟁력 있는 보험료

최대 28% 저렴



경기도 보험료 지원

보험료 20% 이내(백만원 한도)



6개 보험사 참여

삼성화재, 한화손보, DNB손보, 롯데손보, 충국화재, 메리츠화재

가입문의 02)2124-4351 www.pikorea.com

* PL단체보험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KBIZ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멋진 슈트는 없지만…마블과는 다른 ‘K-히어로’들의 매력

‘힘쎈여자’·‘무빙’·‘경소문’ 등…친근하고 인간적인 게 특징

무전기를 타고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린다. 경찰차 여러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가지만, 신고지는 턱없이 멀다. 복면을 쓴 히어로가 때마침 하늘을 가르고 등장한다. 초인적인 능력으로 악인을 단숨에 때려눕힌다.

숱한 히어로물에서 봄 온 클리셰다. 히어로들은 군살 하나 없어 보이는 몸에 딱 달라붙는 멋진 슈트를 입고 있고,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낸다. 자신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고뇌하지만, 결국은 대의를 위해 움직인다.

‘한국형 히어로’들은 조금 다르다. 마장동 정유업계의 큰손 출신 60대 할머니 길중간(‘힘쎈여자 강남순’), 팔 교복 살 돈이 없어 한숨 쉬는 치킨집 사장 장주원(‘무빙’), 머리 희끗희끗한 국수집 명인 주방장 추매옥(‘경이로운 소문’)은 모두 살며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을 범한 ‘보통의 이웃들’이다. 친근하고, ‘사람 냄새’나는 K-히어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7일 첫 방송을 시작한 JTBC 새 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이하 ‘강남순’)은 선천적으로 어마어마한 괴력을 타고난 3



왼쪽부터 ‘힘쎈여자 강남순’·‘무빙’·‘경이로운 소문’

대 모녀 히어로가 주인공으로 나선다.

모녀 3대의 대장 격인 길중간(김해숙)은 왼쪽 어깨에 소 한 마리를, 오른쪽 어깨에 돼지 한 마리를 이고 마장동을 접수했다는 ‘천하무적 정육여인’으로 불린다. 별 만큼 번 짐은 은퇴하고 랑보르기니 오픈카를 끌고 다니지만, 묘하게 정이 가는 캐릭터다.

의식의 흐름대로 톡톡 내뱉는 말과 남 다른 유머 감각, 구수한 플라팅(상대를 유혹하기 위해 하는 행동)까지. 힘이 세고

돈이 많지만, 거리감이 느껴지지는 않는 다.

곁으로는 3대 모녀가 강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신종마약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는 과정을 그리지만, 사실 ‘강남순’은 가족 애에 중심을 둔 작품이다.

연출을 맡은 김정식 감독은 “힘쎈 여자 도봉순”과 다르게 이번에는 전 연령이 화합해 위기를 극복한다”며 “몽골에서 잃어버린 딸 강남순을 다시 찾게 되는 애듯한 가족애가 담기고, 20대, 중년, 노년의 사

랑 이야기도 담았다”고 귀띔했다.

‘한국형 슈퍼히어로물’을 표방했던 디즈니+ 화제작 ‘무빙’의 주인공들도 평범해 보이는 소시민이다.

치킨집 사장, 버스 기사, 동네 슈퍼 주인 등으로 일하며 초능력을 숨기고 살아가던 부모들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히어로가 되고, 자식들은 부모를 지키기 위해 잠재돼있던 능력을 깨운다.

작품 속 히어로들은 세상을 구하겠다는 대의보다는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 싸운다. 히어로라고 해서 모두 멋진 것만은 아니고, 히어로라고 해서 삶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캐릭터를 통해 보여준다.

우리네 현실과 정서가 담긴 ‘무빙’은 해외에서도 신선한 매력으로 호평받았다.

‘한국형 히어로’들의 등장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할리우드 히어로들처럼 초현실적인 액션을 보여주기에는 제작비의 한계가 명확했다. 그러나 최근 제작 기술이 진화하면서 웹툰과 웹소설 속에서 활약하던 히어로들이 드라마로도 넘어오는 추세다. / 이은정 기자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

유재석·성시경 이어 신동엽까지 예능 무게중심 TV서 유튜브로

영상 콘텐츠 소비 방식 변화에 유명 방송인들 웹 플랫폼 진출

‘국민 MC’ 유재석과 가수 성시경에 이어 ‘19금 토크의 장인’ 신동엽까지 연달아 유튜브에 진출해 좋은 성적을 내면서 예능 프로그램의 무게중심이 기존 TV 채널에서 웹 플랫폼으로 한층 더 기울고 있다.

8일 유튜브 채널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설된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은 이달 7일까지 18개의 영상으로 누적 총 2천593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구독자 59만5천명을 모았다.

영상별 평균 조회수는 287만회를 넘고 매일 수천 명씩 구독자가 늘고 있어 앞으로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짠한형 신동엽’은 신동엽이 매회 다른 게스트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다. 채널 제목의 ‘짠한’은 안타깝다는 뜻과 술잔을 부딪치는 소리의 의성어

/ 최희성 기자

BTS 정국, 내달 20일 팬 쇼케이스 장충체육관서 연다



고, 신보 제작 뒷얘기 도 전한다.

정국은 다음 달 3일 ‘골든’을 발표한 뒤 영상통화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팬들을 만나다. 이번 쇼케이스 역시 팬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무대를 보여

주고 싶다는 정국의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팬을 위해 이번 쇼케이스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생중계된다.

정국의 첫 솔로 앨범 ‘골든’에는 글로벌 히트곡 ‘세븐’(Seven)·‘3D’를 비롯해 총 11곡이 수록된다.

/ 박소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다음 달 20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팬 쇼케이스 ‘정국 골든 라이브 온 스테이지’(Jung Kook GOLDEN Live On Stage)를 연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9일 밝혔다.

정국은 이 자리에서 첫 솔로 앨범 ‘골든’(GOLDEN) 수록곡 무대를 꾸미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에 대해 상담받고 싶을 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전화
대표콜센터
02-3702-8500

인터넷 & 모바일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consumer.knia.or.kr)
접속 ➔ 보험상담 접수

카카오톡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채널 추가 '상담' 메뉴 클릭
* 이용 가능시간 : 08:10~11:30, 13:10~17:30 (주말, 공휴일 제외)

•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상품별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22.6.14.부터 카카오톡 상담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AI to [Everywhere]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내 손안의 AI 친구 A.(에이닷)

AI로 하늘길을 연결하는
에어택시 UAM

다양한 산업의 진화를 위한
SKT AI 반도체, 사피온

AI 기반 동물 진단 서비스, X Caliber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설리번플러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맞춰주는
초개인화 미디어 AI Btv까지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 to Everywhere
SK telecom